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2. 11 | Vol. 222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전주 한옥마을- 내장산 단풍 - 백양사 이동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11월 4일 백고좌 대법회 제59일차 이동법회 행사로 전주 한옥마을 - 내장산 - 백양사 단풍관광점 이동법회를 봉행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1930년대에 전주의 교동, 풍납동 일대에 일본인들의 대규모 이주에 대항해 세운 전통 한옥촌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자존심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유서 깊은 전통마을입니다.

내장산은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가을 단풍은 우리나라 최고로 평판이 나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내장산에는 내장사 등 전통사찰이 자리잡고 있어 불자들이 참배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백양사는 서기 632년에 창건한 고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자 고불총림 본사이며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이번 이동법회는 단풍 구경과 함께 고찰을 참배하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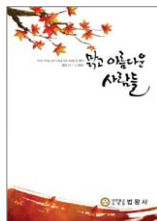
 출 발 11월 4일 오전 6시 30분 법왕사 주차장

 회 비 3만원

 문 의 053)766-3747, 766-9088

※ 45인승 투어버스 3대, 선착순 접수 받습니다.





- 04 깨침의 향기
즐겁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보시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곧 주인이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Ⅲ
일주문 근처에 외로이 서있는 당간지주 · 조명래
- 20 칠성탱화 조성 연기문(緣記文)
치성광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소원 원만성취되길 · 묘도스님
- 22 명찰순례
절제의 아름다운 건축미를 간직한, 무위사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소식
- 32 해오름게시판

즐겁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열심히 인생을 살면 극락(極樂)에서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왕생극락(往生極樂)합시다.

불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를 입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것은 곧 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평생 동안 늘 배워야 합니다. 평생교육(平生敎育)은 현재의 복된 삶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합니다.

요즈음 노후준비로 30대부터 돈을 모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30세 전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칙 대로, 군법 대로 살다보면 어느덧 30세가 됩니다. 그후에야 겨우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세는 이미 늦었다며 30세부터 노후준비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적어도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재테크를 하라고 난리입니다. '상가를 잡아라', '땅에 투자해라', '증권을 사라' 등등 그래서 한탕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몇명이 10억원을 모으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에 가보면 돈 많은 사람도 '외로워 죽겠다'고 합니다. 고혼(孤魂)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운 귀신이 아닙니까? 돈에 관계없이 누구나 죽으면 한 줌의 재박에 안됩니다.

그럼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安寧)이 제일입니다. 안녕해야 삼천대천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만큼 평생 동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건강공부를 해야 합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걸리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병이 들면 몸만 아픈 것은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고(苦)가 됩니다. 병은 생활습관에서 나온다고 하니 평상시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듣는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젊은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합니다. 늙은이도 경청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식들의 말을 잘 들어야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듣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늙어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가 별거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것이 곧 치매입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젊은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은 집에 놔두

고 저들끼리만 소풍을 갈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불효(不孝)에도 분명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끝으로 죽음 공부를 해야합니다. 『티베트 死者의 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아 너는 너의 의사에 반하여 죽는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배울지니라.

그러면 그대는 삶까지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죽음을 배우지 못한 자는 삶까지도 아마 배울 수 없게 될 것이니라.’

한때는 내일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음공부를 잘 하면 내생(來生)에 외로운 귀신이 되어 돌아다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련존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습니까? 만약 목련존자가 살아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했다면 결코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스콧 니어링 교수는 반전 운동을 하다가 해직되어 산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100살까지 산 니어링 교수는 생의 마지막 날에 “나는 세상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즐겁게,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간다”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슬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목숨을 연장하려고 산소호흡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다. 가는 사람은 못 잡습니다. 병이 오면 저 세상으로 가고 복(福)이 다하면 죽는 것이 이치인데 주

사 몇 대 맞고 얼마 더 산들 무엇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참 삶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면 극락(極樂)에서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왕생극락(往生極樂)합시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보시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 백고좌법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그 동안 인천 용화사로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도 다녀오고, 경로잔치도 베풀고, 은사스님인 원공당 정무 대종사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도 봉행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경황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도 깊어만 갑니다. 세월의 흐름은 자연의 이법(理法)이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 보입니다.

법왕사 경내를 거닐며 질푸른 앞산의 녹음이 미세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또한 자연의 이법과 마찬가지로 털끝만큼의 어긋남도 없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어디에도 '나'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실체적 존재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은 곧 '나' 라는 역설적인 명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한몸(同體)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불교의 존재론, 우주론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루살이 한 마리, 허공에 날아다니는 티끌 하나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

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치를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인드라의 그물망처럼 하나로 얹여 있는 것입니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一微塵中含十方(일미진중함시방)
一切塵中亦如是(일체진중역여시)
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 이처럼 일체의 존재가 서로 얹혀서 갈마드는 모습은 일찍이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법이기도 하지만 현대과학이 고도화되면서 새롭게 밝혀내는 자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재물을 보시하고, 몸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도 다 알고 보면 곧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보시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비심(大悲心)은 바로 동체적 조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베푸는 자비가 이 동체적 대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면 시혜자와 수혜자를 가르게 되고 이때 시혜자는 동정심을, 수혜자는 모멸감을 얻게 되어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바깥에서 뛰어놀다 다쳐서 들어온 아이의 상처를 보살피면서 ‘내가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상(相)’을 갖는다면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몸을 다친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동체대비의 자비심입니다.

●● 『금강경(金剛經)』에서는 동체적 보시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고 말합니다. 즉,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는 보시’라는 뜻입니다. 준다는 마음도, 받는다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하나라는 동체적 발로에서 나오는 보시만이 나와 이웃을 함께 성불의 길로 이끌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수확을 함께 나눠야 할 이웃과 그 나누는 마음의 진실된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곧 주인이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뜻을 요약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도모하는 것’이다.



혀는 맛을 볼 뿐, 느끼고 아는 것은 분별하는 인식의 기능에 속한 영역이다. 만약 혀가 오감을 느껴 안다면 혀와 같은 감각기관인 눈과 귀와 코도 혀처럼 맛보고 느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되면 맛을 보는 눈은 몸 전체에 걸쳐 있게 되니 굳이 혀를 통해 맛을 본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혀 또한 눈과 귀처럼 보고 듣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역지가 성립된다.

지금까지 생각이 가지는 기능적 역할을 알아보았다. 이는 팔정도 항목 가운데 두 번째인 ‘정도(正道)의 정사(正思)’에 대해서

‘정사(正思)’가 뜻하는 ‘바른 생각’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사가 지향하는 정도의 법’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마음) 또는 그렇지 못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함께 다뤄야 하기에 이를 먼저 살펴보았다.

고통의 소멸이 궁극적 목적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법을 설하노라. 고(苦)와 고의 종식의 길을 ‘식(識)과 상(想)’을 더붙어 이 한 길 몸뚱이[色] 속에 세계와 세계의



소멸, 그리고 세계가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여래(如來)는 천명하노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시각에서 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고의 문제를 보다 삶의 보편적 현실 문제로 다루어 사람들이 실제 고의 벽찬 힘을 알게 하고자 함에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뜻을 요약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말고여락(拔苦興樂)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 한다. 대승적

인 견지에서는 ‘고의 소멸을 통해 중생을 이익 되게 한다’는 뜻으로 ‘요익중생(饒益衆生)’이라 한다. 또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로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구하는 동시에 아래로는 가엾은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뜻으로 쓰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스스로 짓는 생각을 좇아, 말하고 행동하며 그 행위로 말미암은 선악이 가지는 인(因)과 연(緣)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씨앗이 되어 인연이 화합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혹 슬프

기도 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원초적 발미가 당연히 자신의 몸과 말과 뜻이 행한 삼업(三業, 身·口·意)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요점은 ‘마음이 근본이 되는 자기 생각의 다스림에 있음’에 두고 부처님은 이를 ‘사정근(四正勤)’으로써 가르치셨다.

만 가지 현상은 생각의 종속물
사정근은 선법(善法)을 더욱 자라게 하고, 악법(惡法)을 멀리 여의려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써 첫째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고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는 것이고, 둘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미리 방지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이미 생긴 선을 더욱 더 자라게 하려고 정진하고, 넷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이 생기도록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진(精進)’이라 함은 말 할 것도 없이 행위에 앞서 일어나는 생각(마음)의 다스림을 이르는 실천론 차원의 ‘올바른 생각의

증장(增長)’이다.

선이든 악이든 먼저 자기 생각 안에서 비롯하여 행위로 옮겨지는 것이다. 만 가지 현상은 생각과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종속물이자 부산물이며 그림자이다. 이는 오직 마음이 주체요, 주인이라는 불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며 일어나는 단순치 않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정사(正思)’의 ‘큰 틀’에다 두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얼마 전 모 대학의 석좌(碩座) 교수로 있는 분이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았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인 불교에서 ‘일체는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다’는 말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으며 몸의 주인이라면 대체 몸은 무엇인가? 몸이 아프면 도리어 마음이 따라서 울적해지고, 몸이 가는 곳에 몸에 갖든 마음도 함께 가는 것’ 일 텐데, 이외는 다르게 말함은 다소 무리가 있음이 아닌가?”

불교의 유심(唯心)사상에 의문을 제기한 그 분은 자신의 저서도 여러 권이고 ‘누구’라고 하면 학계에서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알려진 학식이 깊은 고명한 분이다. 이런 분이 ‘마음의 문제’가 일반적 지식 성향과는 차원이 다르게 ‘마음이 주인이다’라는 명제에 이처럼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인 듯하다.

생활습관이 몸과 마음을 지배
신(神)의 존재만이 유일한 유일(唯一)신앙이 아닌, 불교는 우리 몸이 차지하는 기능과 영역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몸은 마음을 따르는 종속적이기에 마음이 지배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뜻에서의 표현일 뿐이다.

흔히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울적해지면서 심신의 생체리듬이 가라앉는 것은 하나로 연관된 심신의 자율신경에 의한 부조화 때문이고, 그래서 몸속에 갇든 마음

이며, 몸을 따라 다니는 마음이 다’는 식자(識者)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그럴듯한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한 단면’만을 보고 말하는 모르는 소견이다.

왜냐하면 몸에 병이 나기까지는 반드시 그럴만한 원인이 있다. 일차적으로 그 원인은 마음이 지는 그릇된 생활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자고로 병을 고치려면 생활습관부터 고쳐야 한다고 함은, ‘삶을 대하는 마음자세를 바르게 가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고혈압 등을 성인병이라 불렀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병은 잘못된 생활에서 비롯된다며 ‘생활습관병’이라 부르고 있다.

일주문 근처에 외로이 서있는 당간지주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사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오래된 고찰이나 절터의 일주문 부근에서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서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간지주는 사찰에서 삼문 형식이 정착되기 이전에 사찰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내의 바깥쪽에서 위치하여 지금의 안내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던 유물이다. 당간(幢竿)이란 기둥 위쪽에 도르래 장치를 해서 당(幢)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둥으로 나무 또는 철이나 구리 등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었다. 당간에 부착하는 당이란 깃발과 같은 장엄물로서 천으로 만들어 길게 늘어뜨리는 번(幡)과 같은 표찰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수 십 미터 높이의 당간에 그 절의 소속 종파나 특정행사와 관련된 깃발을 내걸어 장엄했다고 한다.

당간의 기원

당간의 유래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과 중앙아시아 기원설 두 가지가 있다. 인도 기원설에는 불탑을 장엄하는 일산(日傘)과 깃발 등의 장엄물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즉, 불탑을 장엄하던 깃발 중에서 일부가 당간으로 변했다는 주장이나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당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기원설은 숫대에서 비롯된다. 중앙아시아 샤먼들은 신성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신장대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대’이다. 숫대란 ‘소도(蘇塗)’라는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기념물로 그 위에 새를 조각해서 얹어 놓았다. 여기서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동물로 침엽수·사슴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샤먼들의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새를 상징하는 V자형 관식(冠飾)

중앙아시아 샤먼문화는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신라금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라금관은 신령한 나무와 사슴뿔의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고, 새를 상징하는 V자형 관식(冠飾)과 서봉총(瑞鳳塚)¹⁾에서 출토된 금관에서 발견된 새 등을 미루어 볼 때 신라금관은 중앙아시아 샤먼문화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도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강신무(降神巫)들은 점집 앞에 대나무로 신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 오색천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샤먼문화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주 1) 서봉총(瑞鳳塚) : 경주 소재 고분군의 일련번호로는 노서동 129호분이다. 1926년에 발굴되었는데 마침 일본을 방문 중이던 스웨덴의 황태자이며 고고학자인 구스타브 공작이 참관, 출토된 금관을 손수 채집하였고, 이 금관의 관에 세 마리의 봉황 모양이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瑞典]의 ‘서(瑞) 자와 봉황의 ‘봉(鳳)’ 자를 따서 서봉총(瑞鳳塚)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불국사 당간지주

당간과 불교

당간문화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 당간문화를 흡수하여 신성한 구역인 소도를 나타내기 위해 세웠던 솟대가 부처님이 계신 성스러운 장소를 나타내는 당간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삼문형식이 정립된 이후에는 일주문으로 변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도에 대한 불교의 연관성에 대해 『삼국지위서동이전』 삼한편에, “나라의 수도에 각 한사람이 천신에게 제사지냄을 주제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한다. 또한 나누어진 읍이 두는데 이를 소도라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았다. 소도란 뜻은, 서역의 부도와 같은데, 그 선악을 행함에는 다름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 소도는 부도, 즉 사찰과 같은 곳이라 하

여 천군(天君)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신성한 구역인 소도의 역할을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사찰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좌우당간과 건당

우리나라의 당간은 절의 입구에 하나를 세운 반면에 중국의 당간은 경내에 쌍으로 세운 것이 다르다. 중국불교는 북로라고 불렀던 중앙아시아의 신장대 문화보다는 인도의 당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까닭에 금당 좌우에 당간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좌우당간(左右幢竿)²⁾이다. 그리고 좌우당간은 당간지주가 쌍으로 되어 있어 좌우가 같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건당(建幢)이란 깨달은 선사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전수받아 일가를 이루게 되었음을 뜻한다. 즉, 당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만 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들이고 후학을 지도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는 표현으로 논어에서 공자가 자로에게 했다는 ‘입실(入室)’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 불교용어인 건당과 합하여 ‘입실건당(入室建幢)’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좌우당간이란 말은 중국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하나의 당간을 세우는 우리나라의 당간문화와는 다르기 않기 때문에 ‘좌우지간(左右之間)’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당간지주

원래 ‘당간지주’는 당간을 세우기 위해 만든 두 개의 돌기둥이다. 당간지주는 당간과 짝을 이루어 사찰의 입구 또는 일주문 근처에 세우고 여기가

각주 2) 좌우당간(左右幢竿) : 좌우지간(左右之間), 하여튼, 여하튼 등의 뜻을 가진 말.



부석사 당간지주(보물 제255호) _ 부석사 당간지주는 통일신라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장식이 많지 않아 소박한 느낌을 준다. 보물 제255호 지정되어 있다.

부처님이 계시는 ‘진여(眞如)의 세계’ 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당간’을 장대라고 하고 만든 재료에 따라 돌로 된 것을 석장(石牆), 구리로 만든 것을 동장(銅牆), 무쇠로 만든 것을 철장(鐵牆)이라 하였다. 당간지주 사이에는 당간이라고 하는 긴 장대를 세우고 위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엄물을 올리고 여기에 긴 줄을 연결하여 ‘당(幢)’이라고 하는 커다란 깃발을 달았다.

예전에는 통신수단이 빈약하기 때문에 깃발의 색깔을 달리함으로서 절에서 하는 행사를 알렸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붉은 색 깃발은 법회가 있는 날이고, 흰색 깃발은 큰 스님의 법문이 있는 날이라는 식이다.

장대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두개의 돌기둥을 파묻어 세우고는 두 기둥 사이에 장대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당간지주이다. 당간지주에 나있는 구멍은 당간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당간지주는 사찰의 규모와 비례하여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법당 앞 좌우에 당간지주와 모양은 비슷하나 크기는 작고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돌기둥 2개가 한 쌍으로 하여 각각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간혹 이것을 당간지주로 착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것은 야외 법회시 패불을 걸 때 사용하던 것으로 패불대(掛佛臺)라고 한다.

충북 청주에 있는 국보 제41호 용두사지철당간(龍頭寺址鐵幢竿)과 호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136호 용두보당(龍頭寶幢), 그리고 보물 제256호 계룡산 갑사의 당간은 대표적인 당간지주와 당간이다.

길가 또는 논밭에 홀로 서있는 당간지주를 보게 되면 “아! 아주 오래전에는 이곳에 규모가 큰 절이 있었구나”하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치성광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소원 원만성취되길...

묘도스님 / 법왕사 총무

법왕사가 천막법당으로부터 시작하여 22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중생들과 가장 친밀하고 자손들의 무병장수, 가정 화평, 자손 번영,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하늘의 북극성인 금륜보살 치성광부처님을 모신 칠성탱화는 봉안하지 못했습니다.

시절인연이 닿았는지 지난 8월 18일 음력 7월 초하루법회 때 주지스님께서 칠성탱화를 모셔야겠다는 발원을 하셨고 금어인 영범스님께 시건은 촉박하지만 칠성탱화를 칠월칠석까지 조성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뒤 법왕사 신도님들께 전화 문자메시지와 방송광고, 법회홍보 등을 통해 권선모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권선하셔서 393

명이 탕화조성에 동참하였고, 침산2동 이정상·전옥남, 달서구 월성동 신구자 범우님이 설판재자(說辦齋者)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북구 침산3동 박정묵, 조정숙 범우님이 촛대 2개, 다기 1조, 향로 1개, 마지불기 1조 등 불기를 시주해주셨고, 멀리 목포에 계신 정보현행 범우님이 30명 권선 하셨습니다. 불사금이 합계하여 총 이천오백오만원이 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탕화조성에 오백만원이 들어갔고 본 법당 앰프와 무선 마이크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는데 오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사금은 여러 신도님들께서 한푼 두푼 모아주신 삼보정재이기 때문에 법왕사 불사에 다 쓰일 것입니다. 조성된 탕화는 8월 24일 칠석에 많은 범우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여법하게 봉안되었습니다.

칠성탱화의 주존불은 치성광여래(熾星光如來)이고 좌우에 일광(日光)·월광(月光)보살을 배치하였습니다. 치성광여래는 천재지변과 질병 그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소멸하며 아이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재물과 재능을 준다고 전해지며, 일광보살은 번뇌를 제거하고 광명을 가져다주고, 월광보살은 중생인도를 완성하겠다는 대서원을 발하신 보살입니다. 칠성신앙은 중국의 도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으로 내려오다 불교의 호법선신의 하나로 수용된 것입니다.

치성광여래의 공능을 찬탄한 계송에

“지혜신통부사의(智慧神通不思議) 실지일체중생심(悉知一切衆生心) 능이종중방편력(能以種種方便力) 멸피군생무량고(滅彼群生無量苦) 지혜신통이 생각할 수 없으나 실지로는 일체 중생심을 아는 신통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능히 중생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력을 나투어서 여러 중생의 한량없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다.”라 했습니다. 칠성탱화 조성에 동참해 주신 법왕사 신도님 가정과 하시는 사업이 금륜보살 치성광부처님 가피지성력으로 마음속의 뜻하는 모든 소원이 원만성취되시고 구경(究竟)에는 성불하여지이다.

절제의 아름다운 건축미를 간직한, 무위사

무위사는 도갑사와 함께 월출산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영암에 있는 도갑사가 서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월출산 동남쪽인 강진에 있는 무위사는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사찰이다. 무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인 극락보전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대사가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선각국사(864~917)가 고려 태조 왕건의 요청으로 무위갑사(無爲岬寺)에 머무르면서 절을 중수하고 널리 교화를 펴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명종 10년(1555) 태감스님이 네번째로 중창하면서 무위사라 하였다고 한다.

무위사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오래된 전각도 그리 많지 않지만 극락보전은 예외이다. 국보 제13호인 극락보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조건축물 중에 하나이다. 극락보전은 세종 12년(1430)에 지어졌으며 앞면 3칸 · 옆면 3칸 크기이다. 극락보전은 곡선재료를 많이 쓰던 고려 후기의 건축에 비해, 직선재료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짜임새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조선 초기의 양식을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건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국보 제13호로 지정된 무위사 극락보전. 내부에는 국보 제313호 아미타여래삼존벽화가 있다. 세종 12년 1430년에 지은 조선 초기의 건물이다.

◀ 신라말의 명승인 선각대사를 기리기 위해 고려 정종 원년 946년에 건립된 선각대사 편광탑비. 보물 제507호다. ◀◀ 3층석탑



▲ 극락보전의 옆면, 주심포 맞배지붕의 간결하면서 적절한 비례감의 아름다운 양식이다. ▲▲ 극락보전 앞의 배례석, 배례석은 불전이나 탑 앞에 배치하여 향료나 제기를 올리도록 한 장치다. ▲▲▲ 무위사 사천왕문

극락보전에는 아미타삼존도와 수월관음도가 원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미타삼존불화는 국내에 현존하는 후불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화려하고 섬세했던 고려불화의 전통을 유감없이 이어받은 명작 중의 명작이다.

아미타삼존후불벽화는 가로 210cm, 세로 270cm의 크기로 1476년에 그려졌다. 후불벽화로 그리기 위하여 따로 세워진 벽면에 그려졌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앞의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뒤쪽으로 6명의 나한(羅漢)을 배치하여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수월관음벽화에는 수월관음이 관음보살을 예배하는 선재동자(善財童子)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수월관음벽화의 선재동자는 작은 동자가 아니라 노비구(老比丘)의 모습이라는 것이 색다르다.

이 벽화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온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날, 극락보전이 완공된 후 한 노승이 절에 찾아와 법당에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더니 49일 동안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다. 노승은 법당에 들어가더니 문을

모두 걸어 잠근 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음식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49일째가 되는 날, 궁금중을 못참은 주지스님이 문틈으로 법당 안을 엿보니 파랑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다 그린 후 막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파랑새는 붓을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관음보살 눈에는 눈동자가 없는 미완성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원래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삼존불과 29점의 벽화가 있었다. 하지만 벽화보존을 위해 1976년 극락전을 수리할 때, 아미타삼존불도와 수월관음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27점은 보존각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

1969년 6월 16일 보물 제507호로 지정된 선각대사편광탑비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높이 약 2.35m, 너비 1.12m인 편광탑비는 극락보전 서쪽 약 30m에 위치하고 있는데 돌로 쌓은 담장 안에 남향으로 서 있다. 선각대사편광탑비는 통일신라시대 고승인 선각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탑으로 고려 정종 원년(946)에 건립되었다.

무위사 가는 길

승용차 대구에서 구마고속도로를 거쳐 남해고속도로 강진IC에서 내려 13번 국도를 타고 가면 된다. | **대중교통** 광주중합버스터미널에서 강진행(20분 간격)이나 해남행(20분 간격) 직행버스 이용, 성전면에서 하차, 성전에서 무위사까지 군내버스(하루 4회) 이용. 강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무위사행 군내버스 이용

법왕사 소식

원공당 정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 봉행



법왕사 회주이셨던 정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10월 17일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습니다.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의 은사이시면서 생전에 법왕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법문하셨던 정무 큰스님 추모법회에는 생전에 스님께서 강조하시던 행불과 효사상에 대한 주지스님의 법문과 함께 불교TV에서 방영한 스님 관련 영상물 상영 순서도 있었습니다. 또 이날 법회에서는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정무시님의 음성공양과 도성스님의 바라제, 윤희연 법우님의 극락가는 길 추모 춤 공연도 있어서 더욱 여법한 추모법회가 되었습니다.

가을 경로잔치 성황리에 열려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가 지난 10월 13일(토) 법왕사 광장에서 지역의 어른신 3천여분을 모신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법왕사 불자 등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또한 행사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법왕사 불자들이 기증한 갖가지 선물들을 어르신들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콧수염을 기른 불자 가수 김흥국 거사가 특별출연해 흥을 돋우었으며, 국회의원 주호영 거사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혜능스님 초청 입보살행론 특강 진행중



혜능스님(전 해인사 율원장)이 진행하는 ‘입보살행론’ 강좌가 인기리에 진행중입니다. 법왕 불교대학 중급반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열리는데 매회 50명의 불자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입보살행론’은 7세기 무렵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보리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서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맡은 혜능스님은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밀교학을 연구하고 울산의 람림학당에 주석하고 계신다. 또한 스님은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하고 있어 불자들과도 매우 친숙하시며 이번 강좌는 ‘입보살행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문의 053-766-2805)

방송 인기 진행자 정목, 성담스님 백고좌법회 법문



법왕사에서 진행중인 백고좌법회에 불교방송과 TV의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 스님이 법사로 나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TV BTN의 '행복119 지혜축제'를 진행하는 성담스님께서 11월 3일 법문을 하는데 스님의 프로그램은 생활 속 실천불교의 명쾌한 법문이자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길안내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11월 24일 법문하는 정목스님은 불교방송 프로그램인 '마음으로 듣는 음악'의 인기 진행자이면서 각종 공연의 진행자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수상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추석합동차례 봉행



추석이었던 지난 9월 30일 법왕사에서는 평생 위패를 모신 영가에 대해 추석 합동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날 영가의 후손과 가족들은 법당에 차려진 차례상에 절하고 분향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불명 수지법회 봉행



지난 10월 7일 법왕사에서는 백고좌법회 제 31일차 이동법회 행사로 인천 용화사 조실이신 송담 큰스님을 친견하고 화두·불명 수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이동법회에는 법왕사 불자 100여명이 동참하여 매우 뜻깊은 법회가 되었습니다.

송담스님은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의 은사이신 원공당 정무 큰스님과 함께 근대 한국의 대표적 선사인 전강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중정이신 진제스님과 함께 '북송담 남진제'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선사입니다.

우담바라 합창단 장려상 수상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지휘 정무시, 반주 박수진, 단장 이임숙)이 10월 21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2년 전국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찬불가 '새로 나게 하옵소서'를 불러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수성구 서효철
동 구 이유석 김춘홍 이신혁
북 구 김태형 박은희 김유정 김정운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亡엄부 청주후인 한공을옹 영개(한경남, 경화 복위)
亡형님 남양후인 홍공영기 영개(홍지민 복위)

● 원불봉안 하신 분

3319 김진숙 3320 신나현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489 이유석 490 김춘홍 491 이신혁

● 범종 불사 모신 분

김영자 김형재

● 설판 불사하신 분

권오삼 2,000만원
이상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백고좌 법사비 도움 주신 분

자성화 양영갑

● 법당 일년등 모신 분

안창우

● 조상천도재 올리신 분

10월 12일 손정열, 최서원성 복위 上世先亡
조상일체 영가
10월 21일 이호청, 민주현 복위 上世先亡 조
상일체 영가

● 법보시 하신 분

- 일진행 보살님께서 자신의 시집인 '노보살 일진행의 행복한 황혼길' 100권을 법보시 하셨습니다.
- 평택 명법사 화정스님(대승불교 점심(大乘 佛教 點心)) 100권 법보시 하셨습니다.

● 경로잔치에 도움주신 분

최자비(5만)	최태희(3만)	정시영(5만)
권혁일(5만)	이태화(18만)	최금부(3만)
이성은(5만)	백보현행(10만)	정임분(10만)
강소남(2만)	김상원(5만)	정광춘(5만)
안명희(2만)	강석운(5만)	박동근(5만)
박종성(5만)	청송약수심계탕(10만)	최영곤(5만)
정임분(10만)	양봉훈(3만)	이지우(3만)
양혜진(3만)	조감로연(5만)	임연숙(1만)
신영균(10만)	신창진(10만)	권재현(2만)
김상한(5만)	정민우(3만5천)	이지송(5만)
홍공덕심(10만)	이창식(2만)	박경훈(5만)
부창떡집(떡한말)	김영웅(떡한말)	
권마하연(우유 160개)	홍새미(음료 300개)	
김옥희(미역, 도토리묵)	류윤만(사탕)	
해덕암소숫불(국거리 소뼈)	심규암(공양미 20kg)	
김수경문(우유 198개)	이화꽃집(포도 7box)	
묘도스님(우유 140개, 막걸리 1말)	조애숙(각 티구 50개)	
최경희(절편 한말)	박순복(포도 1box)	
이정남(포도 1box)	권영자(물티슈 24개)	
보성개감 300개, 각티슈 168개	강유미(사탕 18봉지)	
이석담(공양미 20kg)	배해동(썩절편 한말)	
이세정(빵 500개, 요구르트 500개, 음료 200개, 송편 한말)		
정민우(참기름)		

※ 법우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여법한 경로잔치가 되었습니다. 동참하신 불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왕사 게시판

CMS 접수하신 분(9/16~10/14)

한평불사	백춘자 5만원	김의환 2만원
	서필희 1만원	
인 등	김성미 5천원	이승일 2만원
	전재필 5천원	김영희 2만원
	한천숙 1만원	오창혁 1만원
	서상태 2만원	김연자 1만원
	황금석 7천원	신인숙 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류윤희 1만5천원
	성순희 2만원	황국희 2만5천원
	김분용 2만원	홍경숙 1만원
	노경정 2만원	장옥주 1만원
	김명선 2만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전재호 1만원	최인겸 1만원
	이숙희 2만원	강춘희 2만원
	김명숙 1만5천원	
초하루, 축원	김수라 3만원	송수분 2만원
	박정순 2만원	손향숙 2만원
	김지연 3만원	나형진 2만원
	전태일 4만원	진영덕 2만5천원
	송애자 2만원	이영희 4만원
108석등	이창형 3만원	이정연 2만원
	문영자 2만원	현미숙 3만원
원불봉안	이현주 3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경 1만원	이현숙 4만원
	양수한 4만원	심향숙 3만원
	김승한 1만원	조경희 5만원
	최유자 3만원	김옥자 1만원
	이호진 1만원	차미희 3만원
	이종매 3만원	김금순 4만5천원
	김점숙 2만원	
산신인등	전성복 1만원	권미연 5천원
	차상근 5천원	양미경 5천원
	권형식 5천원	김애경 1만원
	박초진 1만원	정영미 5천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해오름불사 남옥연 10만원

법당일년등 채영주 2만원

기 타 심영선 1만5천원 전광환 1만원
김재현 1만원 주석순 5천원
정영석 5만원 이관수 2만원

감사드립니다

- ◎ 경로잔치에 부산 부처님 마을주지이신 효범 큰스님께서 백고좌 법회 법사비를 금일봉으로 내놓으셨습니다.
-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홍곡덕심 정혜륜
- ◎ 백팔통장 회향
김임태
- ◎ 백중 공양미
채희재 최서원성 이정옥 허지현 이현우
류윤만 홍세림 정민우
- ◎ 과일공양
이정생(과일 7box)
- ◎ 떡공양
노귀자 이태화 강지원 정시영 한주형
이태화 백보현행 박진태 유성종 홍곡덕심
류윤만 이세정 김임태 배해동 신종백
최창숙 강석윤
- ◎ 인천 용화선원 이동법회 도움 주신 분
이기홍(우유) 김팔경(우유) 한주형(우유)
최무운해(떡) 김옥연(떡) 이명숙(떡)
박영희(떡) 송외순(떡)
- ◎ 물품 보시하신 분
양영갑(춧대) 양문갑(춧대) 구실생해요령, 건강씨름
장지훈(법당불구) 김팔경(향로) 정난희(향로)
김기덕(춧대) 황지연(춧대) 김대윤(다기)
김대옥(불기) 최지예(화장지) 김영주(스님승복)
서미희(완도미역) 신현수(춧대) 신창희(춧대)
이정생(복숭아나무 10그루)

※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법왕사 게시판

사보 도움 주신 분

최용석 1000부 최정심행 200부 홍공덕심 500부
 합창단원 100부 최민우 1000부 유성중 100부
 이재학 50부 이세정 50부 일심회 200부
 지장회 200부 백복순 50부 관음화원 100부
 해명심 50부 박해진 100부 지장회 회원 익명 100부
 구실상화 200부 정무시 100부 이임숙 200부
 합창단 100부 정광춘 100부 권오삼 1000부
 최태희 50부 심혜정 50부 오경자 100부
 야간경전반 50부 박경란 300부

※ 사보에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삼보정재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추석 도움 주신 분

신창진(과일 1box) 현대건설(과일 2box)
 한유경(한과 1box) 한울용영가(5만원)
 김상수(과일 1box, 떡) 이분근(유과 1box)
 수성우체국(김 1box) 이임숙(과일 1box)
 서민관(과일 1box) 황미선(건강식품)

정광춘(참기름) 백보현행(5만원)
 권숙자(떡) 최옥남(과일 4box)
 김보미(5만원) 김혜진(떡)
 사공관(10만원) 양영갑(과일 1box)
 양문갑(과일 1box) 정순옥(과일 1box)
 최태희(건강식품) 천지한우촌(건강식품)
 배해동(유과 1box, 떡) 사공순옥(10만원)

※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전 추석 공
 양 올리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내에 부처
 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부처님전에 축원 올립니다.

왕생극락하옵소서

- ◎ 백영배 법우님의 亡母부後人 수원 백공상흠
 영가님의 기제사가 10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하진영 법우님의 亡母부後人 진양 하공봉철
 영가님의 막제가 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김웅진 법우님의 亡父모유인 김해김씨 차암
 영가님의 막제가 10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한경남 법우님의 亡母부後人 청주 한공을용
 영가님의 막제가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찬우 변호사, 법왕사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은 변호사 이찬우님을 법왕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변호사님은 경북
 대를 졸업하고 사시 25회에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구지법, 고법 판사를 거쳐 대구지
 법 부장판사, 서부지원장을 역임하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법왕사 법우
 님들께서는 이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3)756-4455 팩스 053)754-4000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내일의 사회복지현장의 일꾼이 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현장실습을 오셨습니다. 120시간 동안 땀흘려 현장에서 실습을 통하여 참된 복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 어른신 선물보따리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른신들에게 미끄럼방지 수면양말과 겨울내복을 준비했습니다. 어른신들께서 추석선물 포장을 뜯어보시고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어르신 생신잔치

10월을 맞이하여 생신이신 두분의 어른신들을 위해 음식과 케익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른신들을 모시고 생신축하노래와 음식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어른신들은 “고맙다”하시며 직원들의 정성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120살까지 장수하세요.

지역주민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 베풀어



지역주민 일천명을 초청해서 해오름요양원 주최로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셔서 신나게 노셨습니다. 초청가수 김흥국님은 지역주민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무료로 노래봉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봄, 가을에 걸쳐 연 2차례씩 지역주민들에게 경로잔치를 개최해서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대학교 경호보안과 학생들 자원봉사활동



대경대학교 학생 9명이 해오름요양원에 자원봉사를 와서 청소와 어른신 말벗, 그리고 식사수발까지 다양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해오름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입내역

무기명후원금 276,780원

◎ 지출내역

- 9월 총 사용내역 673,571원

잔액 293.209원 (2012년 9월말 기준)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물품 보내신 분

이금련 치약 50개

※ 보내주신 후원물품은 해오름요양원어르신들
을 위해서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요양보호사 정춘화

요양보호사 김정희

※ 어르신을 모시는데 있어서 부처님을 모시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하시는 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한성철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준영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정숙

세계사이버대학 이미영

※ 해오름요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습에 임할 것이며 남은 시간동안 실습에 충실히 임하여 사회복지현장에 투입되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해오름 게시판

●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
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
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좌 5,000원부터)



해능스님 초청 입보살행론 특강 개최

법왕사에서는 해능스님(전 해인사 울원장)을 모시고 '입보살행론' 강좌를 개최합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반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열리는데 선착순 50명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입보살행론'은 7세기 무렵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보리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서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맡은 해능스님은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밀교학을 연구하고 울산의 람림학당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님은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하고 있어 법왕사 불자들과도 매우 친숙하시며 이번 강좌는 '입보살행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의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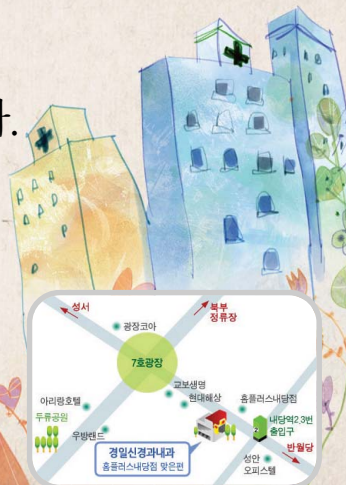
“대구지역 개인병원 최초로 1.5T급 MRI 도입” 경일신경과 · 내과

신경과와 내과 전문의의 협진으로
당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주요검진 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클 리 닉 신경과 | 중풍 · 치매, 두통, 손발저림 · 안면신경, 어지럼증, 수면장애
내과 | 고혈압, 협심증 · 심근경색, 당뇨, 위 · 대장질환, 간질환

찾아오는 길 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 2, 3번 출구 (구, 황제예식장 맞은편)



대구 달서구 두류2동 101-8번지(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문의 Tel.053-652-2525, Fax.053-625-3234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제2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법회(百高座大法會)

법왕사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제23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 명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 스님**
입 재 9월 7일 회 향 12월 15일
시 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상 주지스님께서서 108배 2회를 집전합니다.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58일차
11월 3일
특별초청법회

성담스님
BTN 인기 진행자

●79일차
11월 24일
특별초청법회

정목스님
BBS 인기진행자

●99일차
12월 14일
보살계 수계법문

종진스님
해인사 울주

초청법사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50일차	10월 26일	주경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66일차	11월 11일		
51일차	10월 27일	금담스님	진주 극락선원	67일차	11월 12일	일장스님	유마승가대학 학장
52일차	10월 28일	도진스님	직지사종암	68일차	11월 13일	송현스님	통도사 한주
53일차	10월 29일	각현스님	연꽃마을 대표	69일차	11월 14일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54일차	10월 30일	해강스님	실상사 주지	70일차	11월 15일	해경스님	화담정사 조실
55일차	10월 31일	정인스님	불지사 주지	71일차	11월 16일	정법스님	진홍사
56일차	11월 1일	원소스님	송광사 만월암 주지	72일차	11월 17일	마가스님	안성 굴암사 주지
57일차	11월 2일	정목스님	정토원 주지	73일차	11월 18일	영석스님	영천 전륜사
58일차	11월 3일	성담스님	효심사 주지	74일차	11월 19일	혜조스님	남산 토굴
59일차	11월 4일	내장산-백양사 이동법회		75일차	11월 20일	관일스님	서울 보현사 주지
60일차	11월 5일	종연스님	수미정사 주지	76일차	11월 21일	법성스님	법화경연구원장
61일차	11월 6일	일진스님	청도 운문사 주지	77일차	11월 22일	덕일스님	서울 사홍선원장
62일차	11월 7일	현정스님	칠곡 대원사	78일차	11월 23일	서광스님	청도 운문사 주석
63일차	11월 8일	2013학년도 대입 수능일		79일차	11월 24일	정목스님	BBS 라디오 진행
64일차	11월 9일			80일차	11월 25일	대주스님	인천 정토사 주지
65일차	11월 10일	묘각스님	장성 묘현사 주지	81일차	11월 26일	광명스님	비로선원 주지